

‘오색꽃 향연’...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열린다



내달 5-13일 황룡강 일원서 ‘오색연화’ 주제 힐링 축제 문화존·불먹존 등 5개 테마...백종원 ‘가든바비큐’ 눈길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린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주제는 ‘오색연화’로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핑크몰리, 버베나 등 화사한 가을꽃을 중심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공연과 꽃 체험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전국적으로 꽃 축제 붐을 일으킨 ‘꽃강 축제’의 원조 답게 꽃

자제를 핵심 콘텐트로 앞세웠다. 축제장은 ‘학문은 장성한 곳이 없다’는 의미를 담아 흥선대원군이 남긴 ‘문불여장성’ 문구에서 착안해 ▲문화존 ▲불먹존 ▲여유존 ▲장성존 ▲성장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중앙무대인 황룡정원 인근 ‘문화존’에선 5일 개막식과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라워뷰티쇼 등 축제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가을 오후에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포크송이 연주될 6일 가든포크콘서트에는 서영은, 유리상자, 여행스케치가 출연한다. 9일에는 4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연과 인디밴드들의 무대인 ‘오색연화 콘서트’가 열린다. 11일에는 장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평화콘서트, 12일에는 전남제천성공기원음악회가 이어진다. 특히 성공기원음악회는 내년 4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제6회 전남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한 데 모으는 자리다. 1부는 뮤지컬·팝페라 공연, 2부는 김희재, 예능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음악

회가 기다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내년 축제를 기약하는 폐막공연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불타는 먹거리존’의 줄임말인 ‘불먹존’은 장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공간이다. 장성군과 협업 중인 백종원(투더본 코리아 대표)가 비법을 전수한 특제 가든바비큐부터 글로벌푸드, 로컬음식, 농특산물장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대교 인근 ‘여유존’은 말 그대로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

한 곳이다. 캠핑에 피크닉을 더해 가볍게 머물며 쉬 수 있는 ‘캠프닉’,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가든티타임’, 꽃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플라워아트’, 요가, 전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장성존’은 강 건너편 힐링허브정원 방면에 있으며 ‘놀이 한마당’과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라면 ‘성장존’이 있는 황미랜드가 안성맞춤이다. 놀이터 인근에서 꼬마 댄서들을 위한 ‘랜덤 플레이 댄스’, 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호빛의 동굴’까지 가면 아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과자점 ‘용뽕빵상점’에서 흥미로운 게임이 펼쳐진다. 이 밖에 황룡강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꽃길 버스킹’을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5일 오전에는 방문객들이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강변을 걷는 ‘플로깅 행사’도 열려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꽃’이 ‘문화’가 되는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며 “자연 친화적 축제로의 외연 확장, 세계와 소통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방문과 참여,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김문태기자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문화복합공간 탈바꿈

유희공간 재구성...학습공간 주·야간 무료 개방도

담양군은 “최근 군 소재 한국대나무박물관이 기존 카페동 리모델링을 마치고 군민동아리 연습공간, 문화교실, 갤러리 등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변신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88년 개관 이후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 연 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나무공예 문화탐방 명소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반적인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유지비는 매년 오름에 따라 담양군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 왔다. 담양군은 한국대나무박물관의 단순한 대나무공예 전시 기능에 치중된 운영을 벗어나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학

습 체험의 장이자 대나무숲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유희공간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박물관 내 학습공간을 지원한다. 박물관 내 학습공간은 3개소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기관단체의 교육 장소, 5인 이상 학습 동아리의 연습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주·야간 무료 개방한다. 사용 신청은 한국대나무박물관 방문 상담을 통해 예정되며,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으로 전환하고자 기관 단체, 대나무공예 체험 교육을 신청받고 있다. 박물관 체험교육장 또는 찾아가는 죽공예 교실을 통해 교육을 운영한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전경. <담양군 제공>

다. 이 밖에도 대나무박물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명상요가 문화강좌’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담양도서관과 담양문화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정선미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롭게 요구되는 박물관의 역할에 부응하고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기자

‘2024 여수 도시재생 한마당’ 성료

8개 도시재생지구 참여...지속가능 도시재생 초석 다져

‘2024 여수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시민들의 큰 응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도시재생사업 8개 사업지구(광림·충무·중화·문수·한려·국동·주삼·남산) 주민들이 직접 달린 마을 모습을 발표하며 지난 10년

간의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8개 사업지구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의지를 다졌다. 주민조합이 직접 생산한 상품으로 꾸민 플리마켓에는 된장, 간장, 단풍퀴, 김치, 삼푸, 비누, 장아찌 등을 구

매하려는 방문객으로 붐볐고, 도시재생 관련 퀴즈와 돌림판 게임 등에 참여해 기념품을 받고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는 행사장 내부에 2028여수세계박람회 특별 홍보관을 마련해 공식마스코트 ‘다섬이’ 판박이 등을 나눠 주며 섬박람회 홍보에 집중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늘처럼 한마음 한 뜻이 돼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흥 분청사기 예술성, 전세계서 ‘주목’

국제도자아카데미 참석...공립박물관 최초 신규회원 등재

고흥군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도자아카데미에 참석해 고흥분청사기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렸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포르투갈 갈다스 다 레인하(Caldas da Rainha)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도자아카데미

미(IAC,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81개국 1천여명의 도예 작가와 기관들이 모여 국제도자아카데미(IAC)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발표, 회원국 간 교류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신규회원 기관 소개 및 회원증

수여식을 가졌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해 9월 공립박물관 최초로 국제도자아카데미(IAC) 회원기관으로 등재, 신규회원으로 기관 소개 및 회원증 수여식에 참석하며 전 세계 도자 전문가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정혜경 고흥분청박물관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 유치·참여를 통해 고흥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병환기자

구례군,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성료

밤 활용 음식 만들기 등 달디달고 달디단 밤체험

구례군은 25일 “지난 22일 지리산농부마을 농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팜파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팜파티’란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

류여건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지리산농부마을이 주관했으며, 관내 학생과 유학생들, 다른 지역 체험객 등 130여명과 함께 구례의 특산물 밤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밤 따기 및 밤

내 손으로 밤 굽기) ▲크로키와 핸드페인팅 ▲밤 가공품 전시 상품 홍보 ▲해금 클래식 공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답례품 지급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시된 농산물 가공 상품 가운데 밤젤, 밤실, 밤배 도라지 스틱 등은 뛰어난 맛 뿐만 아니라 편리한 포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행사는 전 연령의 도시 소비자가 지역 농산물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믿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순천교육지원청, 늘봄학교 청소년 웹툰 전시회

오늘 동성공원 야외전시·온라인 전시 병행

순천교육지원청은 25일 “순천 늘봄학교 아이들의 창의적 학습 결실을 꽃피우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순천의 자연과 디지털 공간에서 동

시에 펼쳐지며 학생들의 웹툰에 대한 열정과 상상력이 아름다운 예술로 피어나는 순간을 선보인다. “나도 웹툰 작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관내 15개교 600여명 학생들이 참여한 순천형 늘봄 프로

그램 ‘꿈꾸는 웹툰 교실’을 통해 창작된 결과물로 꾸려진다. 작품은 연향제1근린공원(동성공원)에서 야외전시로 공개되며 순천의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랜선갤러리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허동균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구복규 화순군수 “청년 실질 지원 방안 마련”

토콘서트서 청년 일자리·복지·주거 방안 등 의견 공유

구복규 화순군수가 ‘청년과의 한판 토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화순의 미래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청년 30여명과 함께 ‘청년과 군수, 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콘서트 개최했다. 이번 토콘서트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청년 협의체, 청년 공동체, 청년 농업인 등 화순군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일

자리·복지·주거 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토콘서트에는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경제적 지원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지원 ▲도서 문화 산업 활성화 ▲청년 농업인 면 단위 주거 지원 ▲체육·문화 연계 관광 산업 활성화 ▲만연산 등산로 정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시기 조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과 소통했다. /화순=이병철기자